

아르헨티나 현상의 문화적 기원

페론이즘의 한계와 문화적 유산

정진영

세종연구소, 정치학

I. 서론

‘아르헨티나 현상’이란 금세기 초반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정치발전을 이룩해오던 아르헨티나가 후반에 들어와 경제적 정체와 정치적 불안정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일컫는다. 아르헨티나인들의 표현을 빌려 바꾸어 말하자면,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일부”에서 “남미의 일부”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 이야기할 때 종종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왜 이러한 “발전의 逆轉”이 일어났는가?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¹⁾ 이베리아-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전통, 종속자본주의, 보호무역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페론주의와 노동자 계급의 동원,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 stop-go 경제정책, 빈부격차,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군부개입, 세계경제의 불안정, 만성적인 고율의 인플레이션, 심각한 재정적자, 자본유출, 과도한 외채 등의 이유들 중에서 하나 또는 연계된 몇가지가 아르헨티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물론 가치있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르헨티나 현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많

1)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최근의 논평은 다음의 글들에서 볼 수 있다. Jorge Schvarzer, “The Argentine Riddle in Historical Perspectiv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27 No.1 (1992); Carlos Waisman, *Reversal of Development in Argentina: Postwar Counterrevolutionary Policies and Their Structural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제1장.

은 도움을 준다.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한 다음의 두 연구를 잠시 살펴보자.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미국 학자인 위니아(Gary Wynia)는 아르헨티나 현상을 “통치불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아르헨티나의 공공생활을 특징지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하나는 “거부권 정치”(veto politics)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성장과 이것에 대한 배타적 통제가 정치적 생존에 대해 갖는 중요성”이다.²⁾ 아르헨티나의 파편화된 사회정치적 세력들은 어느 누구나 일단 권력을 잡게되면 국가-정부재정, 관직, 국영기업의 돈과 일자리-를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과 정치적 배제는 다른 세력들로 하여금 정치적 반대를 증가시켜 정치적 불안에 결과한다. 어떠한 세력도 안정적인 정치경제적 지배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세력들은 각각 상대방의 지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된다.

다른 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수수께끼의 직접적인 원인을 페론시대의 두 가지 정책이 갖는 사회정치적, 경제적 영향에서 찾고 있다. UC-San Diego의 아르헨티나 출신 사회학자인 와이스만(Carlos Waisman)은 “경제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한 절대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정치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융합적 조합주의 전략”의 결합에 따른 사회적 변동이 아르헨티나 逆轉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호무역과 정부지출의 확대에 기초한 페론주의 경제전략은, 정치적으로는 국민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정통적, 시장지향적 반페론·보수주의의 경제전략은 경제논리상으로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지를 획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페론주의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고,

2) Gary Wynia, “Argentina: The Frustration of Ungovernability,” in Robert Wesson (ed.), *Politics,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84), p. 15; Gary Wynia, *Argentina in the Postwar Era: Politics and Economic Policy Making in a Divided Societ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78).

3) Carlos Waisman, *Reversal of Development in Argentina*, p. 94.

반페론주의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페론시대 이후 아르헨티나의 딜레마는 페론주의든 반페론주의든 어떠한 정치세력도 안정적인 지배를 구축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⁴⁾

위니아와 와이스만의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수수께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페론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연히 페론시대가 아르헨티나 발전의 분수령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페론시대 이전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던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가 페론시대에 질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후의 “발전의 역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글도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페론시대가 문제”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페론시대가 아르헨티나 현상에 미친 영향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의 미비점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동어반복의 위험성이다. 아르헨티나 현상이 긴밀히 연관된 정치경제적 악순환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변수들로서 경제적 정체를 설명하려 하거나 경제적 변수들로서 정치적 불안정을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상호작용과정의 특정 단면을 중시한 결과이고 이는 곧 순환논리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현상에 대한 보다 만족스런 설명을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요인 이외의 심층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왜 정치경제적 악순환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실 아르헨티나 현상에 대한 핵심적 질문으로,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갈등구조 및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탈출구를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해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수수께끼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40여년간이나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면 의지적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단합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공동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집합행동의 문제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변을 지적함

4) 이 명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다음을 보라: William Smith, *Authoritarianism and the Crisis of the Argentine Political Econom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aul Lewis, *The Crisis of Argentine Capit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0).

으로써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민족국가가 국가간의 체계에서 살아남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이 당연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있기 마련이고, 이의 충족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적·경제적 발전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문제가 이 글의 주된 관심이다.

II. 기본적 주장

이 글은 아르헨티나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페론이즘이 남긴 정신적·문화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먼저 문화적 설명이 갖는 한계나 동어반복의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은 불가피하다. 아르헨티나 현상과 같은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현상을 문화적 요인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까? 원래 문화란 좀처럼 변하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변하는 것으로 종종 간주된다. 따라서 문화적인 변수들을 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된다. 이것이 곧 문화적 설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비판이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현상, 더 일반적으로 남미현상을 이베로-아메리카의 문화적 요소들으로써 설명하려는 시도는 바로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⁵⁾ 그러나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불변의, 지속적인 성질만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화는 물론 쉽게 변화지 않고, 이것의 의도적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적 변화를 사회과학적 유용성을 갖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 이러한 설명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위아르다이다. Howard Wiarda, *Corporatism and National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1981). 이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은 매우 직설적이다. 아르헨티나 현상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던 정치경제가 쇠퇴와 혼란의 와중에 빠진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적인 문화적 요소들으로써 어떻게 발전과 발전의 역전을 설명할 수 있느냐 것이 곧 비판의 요지다. 그러나 위아르다도 사실 발전유형의 연속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유형의 단절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그는 강조점을 역사의 연속에 두고 있을 따름이다.

는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동양문화, 서양문화 또는 유교문화, 기독교문화를 말할 때처럼 문화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문화의 지속성·불변성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 자기집단과 남의 집단,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갖는 인식과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문화를 사용하면, 문화적 요인들의 가변성과 더불어 사회현상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문화, 문화적 변동이란 개념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되고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의 기회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동은 반복해서 선택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행동은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고 어떠한 행동이 처벌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요인들과 더불어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정한 사회구조나 제도는 어떤 종류의 행동은 금지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행동은 허용하거나 부추긴다. 따라서 특정한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게 된다. 반면 문화는 개인들의 주관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나 정책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조적·제도적 요인들과 문화적 요인들간에는 유기적 상호작용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회의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되면 국민다수의 의식상의 변화가 따라오기 마련이고, 이것이 특정한 유형을 갖고 고착되기 시작하면 문화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적인 유형이 일단 자리잡고 나면, 이것 역시 쉽게 변화하지 않고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을것이다. 정치경제적 위기의 장기적 악순환을 지칭하는 아르헨티나 현상을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각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의 기본적 주장은 아르헨티나 현상의 기원이 페론시대가 가져온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변화에 있다는 것이다. 즉, 페론시대에 이룩된 민중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의 특수한 결합이 아르헨티나의 정치적·제도적 틀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아르헨티나인들의 의식, 태도, 신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이후 아르헨티나의 “발전의 역행”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밀접히 관련된 5개의 명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민중주의, 민족주의, 조합

주의라는 세 가지 사회적 이념은 아르헨티나라는 민족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킨 것은 페론에 의해서였다. 즉,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라는 역사적·문화적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전의 이데올로기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예컨대, 페론 이전에는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보다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념이었다.

둘째, 조합주의적-민중민족주의적 발전의 정책과 제도들이 국가 및 타집단, 타인에 대한 아르헨티나인들의 태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민중주의적 동원체제를 통하여 고도로 조직화·정치화되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인들은 친구와 적의 구분을 뚜렷이 갖게 되었고 국가가 사적인 이익추구의 도구라는 사실을 강력히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주의적 구조와 페론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은 억제되고, 조화와 단결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유지되었다.

셋째, 민중주의와 민족주의가 1930-40년대 아르헨티나의 국내외적 상황하에서 결합하면서 민족주의가 국내적 통합보다는 분열을 촉진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다. 독립국가로서 이미 1세기 이상 존재해온 상황에서 발전한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보다는 전통적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의 저항이념으로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민족주의는 곧 민중주의, 반자유주의와 종종 동일시되었다. 그 결과 민족주의가 국민 전체를 한데 묶어 공동의 회생과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으로 작동할 수가 없었다.

넷째, 조합주의와 민중주의는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회조직·관리의 이념이었다. 우선 조합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조합과 그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체제내로 통합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민중주의 정치는 조합주의적 조정과 화해의 정신을 명백히 파괴한다. 따라서 민중주의가 강화되면 조합주의의 조직과 정신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페론주의의 발전모델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페론이라는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이 사라짐에 따라 분열된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머리는 없이 신체의 부분들만 남아 각기 자기의 역할과 몫만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즉 무수한 조합들과 민중을 하나로 묶어 민족적 공

동이익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엮어갈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페론주의는 페론의 카리스마가 있을 때 기능할 수 있었다.⁶⁾ “페론없는 페론주의”는 민족주의 없는 조합주의, 통제되지 않는 민중주의를 의미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페론주의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III. 페론이즘의 가능성과 한계

1. 페론이즘의 등장과 가능성

페론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페론이즘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조합주의(corporatism), 민중주의(populism), 민족주의(nationalism)였다. 페론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교묘하게 통합함으로써 특유의 통치이념과 이에 기초한 정치경제 체제를 구축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아르헨티나나 그 밖의 이베리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의 문화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페론주의에 특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독창성과 정치적 능력은 이것들을 결합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서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데 사용한 방법에 있었다.

조합주의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독특한 정책결정체계로서, 그 작동원리는 사회의 주요 집단들이 ‘조합’(corporate)들로 조직되어 국가의 관련된 정책 결정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더불어 집단들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및 타협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조합원들의 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합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의 각 부문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때 바람직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조합주의의 이러한 유기체적 국가관은 의회주의나 다원적 이익집단이론이 상정하고 국가-사회와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⁷⁾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론시

6) 정치적, 제도적 설명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페론의 초기 시대에 페론주의적 발전모델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아르헨티나 발전수준과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 따라서 페론식 발전전략은 그 자체의 결합 때문에도 그 이후의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7) 조합주의는 여러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조합들의 조직화를 주도하고 통제하는

대 이전에는 아직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아 사회적 통합과 분화의 수준이 낮아 조합주의적 체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미약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본 대 노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세력의 정치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민중주의는 민중부문의 직접적 동원과 지지에 기반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이들의 운명을 위로부터의 개혁 또는 시혜를 통해 개선하려는 정치형태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 (또는 중남미) 사회가 민중부문 대 전통적 과두지배세력으로 양분돼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아르헨티나는 독립 이후 1900년대 초엽까지 농촌의 대토지 소유자들인 전통적 과두지배세력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그러다가 민주적 개혁주의자들인 라디칼당(Únión Cívica Radical)이 과두세력을 대체해서 단기간 집권하면서 보수세력과 민주세력간의 대립이 어느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노동세력이 성장하고, 1943년 쿠데타와 1946년 선거를 통해 페론이 등장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대립구조는 페론 대 과두세력-라디칼당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대립구조 속에서 페론은 민중부문의 동원과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했다.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는 193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국제적 환경은 대공황과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으로 아르헨티나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이 배타적인 무역블록들을 만들어 가면서 아르헨티나는 주요 수출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던 영국이 영연방 국가들과 쌍무적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블록을 만들면서 아르헨티나를 배제시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아르헨티나의 보수정부는 영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영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Roca-Runciman 협약을 맺었다.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 특히 경제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불평등 조약 및 이를 계기로 활발해진 아르헨티나와 선진국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바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⁸⁾

방식에 따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민중부문의 포용여부에 따라 융합적 조합주의와 배제적 조합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8) 1930년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vid Rock, *Argentina 1516-1897: From Spanish Colonization to Alfonsín*(Berkeley: University

페론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와 발전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조건이 존재했다. 페론주의는 우선 아르헨티나라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서 가능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와 남부유럽으로부터의 이민유입으로 카톨릭적 세계관, 조합주의, 유기체적 국가관과 같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 수입대체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됐다. 그 결과 노동운동의 발전이 비교적 빨랐다. 따라서 그 이전 이리고옌(Yrigoyen)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민중주의적 동원의 기반이 성숙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세력의 민중주의적, 조합주의적 동원과 통제는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페론에게는 정치전략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잘 조직되고 강력한 전통과두세력 및 중산층에 기반을 둔 라디칼당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동원은 바로 이러한 페론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었다.⁹⁾

또한 페론은 민족주의적 호소를 통하여 자신을 포함한 군부내의 민족주의자들과 산업화를 통하여 새로이 등장한 노동세력 사이의 동맹을 가능하게 만들었

of California Press, 1987), pp. 224-231.

- 9)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페론에 의한 민중세력의 조직과 동원은 그가 권력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는 파렐(Edelmiro Farrell) 대통령하의 군사정부에서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을 맡았고, 그 조직과 자금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나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지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주로 군사정부에 대한 노동세력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그쳤고, 그 이상을 시도했을 때는 군부와 노동세력 양쪽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았다. 사실 그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1945년 10월 군부에 의해서 잠시동안 투옥되기도 했다. 그리고 1946년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은 노동당의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 지지를 받았지만 노동세력의 자율성은 여전히 매우 강력했다. 따라서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노동조직의 자율성을 줄이면서 조합주의적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을 때에도 초기에는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보수세력과 좌익 공산주의 세력의 반대에 맞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세력의 지지를 동원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민중주의적 정책과 조합주의적 동원 및 통제가 불가피했다. 페론의 민중주의가 갖는 이러한 방어적, 정치적 편의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 Rock, *Argentina 1516-1987*, pp. 249-261; David Tamarin, "Yrigoyen and Peron: The Limits of Argentine Populism," in M. Conniff ed., *Latin American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2).

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보수세력과 노동세력은 모두 민족주의보다 국제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농산물의 수출과 외국으로 부터의 투자유입에 의존해 있었고, 노동세력의 성장은 바로 수출신장과 외국 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30년대 이전까지 대외관계에 관한 아르헨티나인들의 지배적인 사고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다. 그러나 1930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농산물 수출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수입대체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노동세력은 보호무역과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선호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또한 2차대전 기간중 아르헨티나의 중립정책이 미국의 의혹을 받아 아르헨티나 상품의 미국시장접근이 견제되고 전후의 복구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아르헨티나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감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미적 성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페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여 민중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로부터 아르헨티나의 대외적 이념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부터 보호주의적 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페론주의를 통한 민중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곧 수입대체산업화의 추진이었다. 수입대체산업화는 물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진행되었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수입대체산업화가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었는데 비해, 페론의 집권 이후부터는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자원동원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반응이었다. 당시의 경제적 여건은 대공황과 세계전쟁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대외경제관계가 위기에 빠져있었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때였다. 또한 정치적 연건으로 볼 때에도 새로운 지지기반의 구축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추진은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수요의 확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사회적 소득이전이 필요했는데, 이는 곧 민중적 지지의 동원과 직결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시장의 보호와 국내 자본가 계급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도 잘 부합하였다. 따라서 페론주의적 발전모델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여겨졌다.

이상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페론주의 이데올로기는 페론 자신에 의해서 정의주의(Justicialismo)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의주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복지증진, 고용증대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 “정치적 주권”을 확립하며, 자립적 경제기반의 확충으로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로써 건설될 “신아르헨티나”는 “화해의 국가”(Estado de Comprimiso), “조직화된 공동체”(La Comunidad Organizada)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러나 현실적으로 페론주의의 정치경제적 전략들이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음을 조만간 드러났다. 1940년대의 하반기 동안 페론주의 전략은 그런대로 잘 작동했다. 2차대전 기간 동안 늘어난 외환보유고와 전후의 수출증대로 수입대체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를 들여올 수 있었고, 농산물 수출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장악하여 산업투자에 투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증대가 달성되었다.¹¹⁾ 임금상승과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로 국내수요가 증대하여 늘어나는 산업생산물에 출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전략이 가진 한계는 194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러났다.¹²⁾ 수출시장은 줄어들고 국내소비는 늘어나면서 수출은 줄어드는데 산업화에 필요한 설비와 중간재의 도입은 증가하여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정수입은 감소하는데 정부의 지출과 국영기업의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를 화폐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물가가 치솟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정치적 반대를 증가시켰고, 이에 맞서 페론정부는 억압조치들을 강화했다. 그 결과 동맹세력들은 하나씩 이탈해 갔고 반정부 세력은 점차 불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경제적 양보를 취하면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고, 정치적 억압장치를 강화하면 정치적 대결이 제로섬 게임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곧 1952-55년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한 과정의 종말은 결국 군사쿠데타였다.

10) D. Rock, *Argentina 1516-1987*, p. 264.

11) 여컨테, 무역진흥기구(Instituto Argentino para la Promocion del Intercambio)는 수출 농산물을 독점적으로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수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을 투자재원과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하였다.

12) P. Lewis, *The Crisis of Argentine Capitalism* 제9장 참조.

2. 페론이즘의 한계

그러면 페론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페론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가? 페론 이전이나 이후의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승패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승패는 아르헨티나 밖의 세계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페론의 실패 또한 페론이즘이 가졌던 본질적 한계보다 당시의 세계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글은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르헨티나 현상에 대한 구조적·제도적 설명은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로 보완될 필요가 있고, 이 글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페론주의는 자체적인 모순과 더불어 그것의 성공에 따른 사회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그것이 갖는 매력에 아르헨티나인들의 의식과 문화속에 깊이 스며든 것에 비례해서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페론주의의 한 요소인 조합주의의 한계부터 생각해 보자. 조합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변화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 추구되곤 했다. 특히 유기체적 국가관이 강력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반자유주의적·반공산주의적 제3의 길로 조합주의가 채택되곤 했다. 페론도 조합주의의 이러한 효용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추구했다.¹³⁾ 그러나 조합주의 체제는 사회적 변동의 폭과 속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효용이 드러난다. 사회적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일어나면 조합주의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사회변동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세력들이 급속히 등장하면 이들을 조합주의체제내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권력경쟁자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계속 추가되지만 한다면 조합주의 체제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이에 대해 조합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위아르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3) Rock은 당시 미국 대사였던 James Bruce에게 페론이 자신의 조합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D. Rock, *Argentina 1916-1987*, p. 292.

일종의 포화상태와 마비가 시작되고, 조합적 이해와 이데올로기의 수가 너무 커지고 다양해져서 더이상 화해하거나 조정될 수 없게 되며, 공통된 합의 혹은 지배적 통치 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국가조직은 와해되고, 위기는 항상적이며 일상적인 것으로 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주의적 상황에 전개되고, 정치는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¹⁴⁾

조합주의의 한계는 이것이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명백해졌다. 국가가 민중들을 조직해서 동원하고 그들의 욕구를 국가의 운영에 반영한다면 다양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은 결국 국가의 권위(또는 강제력)와 재정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넓힘으로써 조합주의의 틀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왔고, 사적인 갈등의 조정을 맡은 국가는 이를 공공지출과 투자의 증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경제적 효과는 잘 알려진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의 만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로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한 페론의 리더십이 건재하고 있는 한 있었다. 그것은 곧 페론의 권위로 각 집단들의 욕구를 줄이고 타협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한 잠재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합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페론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리더십이 갖는 한계는 페론의 1기 집권 후기, 그리고 특히 2기 집권기(1973년 11월 - 1974년 7월)에 뚜렷이 드러났다.

페론주의가 갖는 또 다른 한계는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경제적 자립(Autarky)을 추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도 발견된다. 페론은 2

14) 하워드 위아르다, “조합주의의 정치문화,” 김병국의 공편,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서울: 나남, 1991), pp. 210-211. 다시 말하면, 조합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변동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것의 원만한 작동 자체가 강력한 집단들의 수가 제한돼 있고 변동의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위아르다의 다음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의 결속력을 토대로 하는 이해관계의 공통된 기초가 더이상 존재치 않을 때, 계급 사이의 ‘조화’라는 관념이 계급갈등에 자리를 내어줄 때, 조합적 구조내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의 축이 전통적 구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중첩될 때, 사회적 쟁점이 더이상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범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대중동원의 정치가 시작될 때, 국민의 분열이 증가되고 양극화될 때, 유기적 ‘가족’으로서의 국가라는 이상은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같은 글, p. 207.

차대전 중이나 전후 미소 간의 대립구조 속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민족주의의 길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외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은 그러한 민족주의적 목적의 달성이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금수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산업화 과정을 난관에 빠뜨렸으며, 아르헨티나 농산물의 미국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심화시켰다. 또한 수입대체산업화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를 자립적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욱 대외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페론 스스로도 다국적 기업의 국내유입과 농산물 수출증대를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이 페론주의는 그것이 지닌 가능성 때문에 대단한 매력이 있었고 아르헨티나인들을 한때나마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러한 매력과 열광의 결과는 페론주의가 가진 명백한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그것에 환상을 갖고 집착하게 함으로써 아르헨티나를 위기에 빠뜨렸다. 더우기 페론주의가 남긴 정신적·문화적 유산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공동의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아르헨티나를 끊임없는 교착상태에 빠뜨리게 하였다.

V. 페론주의의 문화적 유산: “머리없는 신체, 민족없는 조합”

페론주의의 흥망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의식과 관습 속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공동의 목표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이를 위한 수단에 대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동체 의식의 상실부터 생각해 보자. 페론은 사회의 주요 부문들을 조합으로 조직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그들의 이익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조직됐지만 실제 이들의 이익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었다. 그것은 페론의 권위에 눌러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정책의 큰줄기는 페론주의에 의해서 잡혀나갔기 때문이다. 다만 페론에 대

한 지지와 위로부터의 통제에 대한 대가로 조합의 존립을 보장받고 정부로부터 불규칙적으로나마 시혜를 받았으며 자신들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페론의 퇴장과 민주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머리는 없이 신체부위들만 남은 상황을 초래했다. 다양한 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들 간의 '분배투쟁'이제로섬 게임화하여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비현실적이고 원래부터 내적인 한계를 가졌던 페론적 민족주의는 외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포기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여서 국민들의 애국심이나 단결을 끌어낼 수는 없었다. 그 결과 페론이즘이 이상으로 내걸었던 "조직화된 공동체"는 한낱 환상에 그쳤고, "파편화된 공동체"만 남게 된 것이다. 즉, 국가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이를 바탕으로한 상호협력은 사라지고 소위 "집단이기주의"만 남은 꼴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아르헨티나인들은 기본적인 국가의 목표, 공공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위니아의 다음 구절은 길지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의 목적을 결정하는 일이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사람들보다 더한 정도로 그들은 개인의 이해는 어디서 끝나고 사회적 책임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것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의 원리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실패를 대비해 살아갈 구멍을 만들어 가는 국민적 습관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생존에 큰 신뢰를 주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들로써 그들은 어떠한 정부나 정책에 너무 의존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그것도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라면, 많은 것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보적인 태도가 정부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도 한걸음 물러선다. 이러한 습관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굳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혁명이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일은 오직 천천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정신상태가 변화지 않는 한, 과거의 반복 이외의 어떤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¹⁵⁾

위니아의 위의 글에서도 절망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인들은 어떠한 위기해결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 즉 공동목적의 추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졌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 손해보고 이를 교묘히 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란 어차피 어떤 세력의 손에 놀아나기 마련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이 정부를 장악하면 쫓아내야 하고 우리가 장악하면 최대한 이용해서 사욕을 채워야 한다.¹⁵⁾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은 성실한 노력과 능력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국민적 태도의 기원은 물론 여러가지에서 찾아질 수 있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루이스는 아르헨티나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조합주의의 도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조합주의적 질서의 도덕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도덕적 타락(moral decay)은 자본주의에 대해 특히 치명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효과성은 기업가적 정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국가에 의해 양산된 무모한 규제들은 비지니스맨들로 하여금 정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지하경제로 퇴각함으로써 그러한 규제들을 회피하도록 고무시킨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범죄 기술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는 것보다 자연히 더 중요하게 된다. 국가가 성공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국가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필요성이 증대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회피라도 해야 한다..... 경제가 정체상태에 빠짐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정치는 더욱 제로섬 게임화되어 갔고, 패자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국가의 결정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났을 경우 스트라이크, 공장점령, 사보타지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 사용자들은 공장폐쇄,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자본철수로 맞섰다. 아르헨티나인들은, 공적인 논쟁에 종종 등장하는 시끄러운

15) Gary Wynia, “Argentina: The Frustration of Ungovernability,” pp. 33-4.

16) 이른바 “분파주의적 국가”(partisan state)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보다는 갈등심화의 원인을 제공한다.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적의식을 점점 잃어갔다.¹⁷⁾

페론시대 이래로 침예하게 드러난 전통과두세력과 민중세력 사이의 불신과 반목은 정치적 불안정, 국가의 마비상태, 경제적 침체를 연속시키고 있다. 누구도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채 단기적인 자기 이익의 극대화 손실의 극소화에 메달려 있다. 군부나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교착상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곤 하지만 조만간 실패로 끝났다. 정권 담당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이념에 얽매여 있고, 사회집단들은 그들의 호소에 감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적의식이나 연대감 대신에 상호불신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모두 손해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의 지적을 다시 인용해 보자.

과두세력과 민중 사이에 어떠한 신뢰나 공동목적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장군들은 모두 실패하고 만다. 과두세력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해외에 뺄려 놓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아무런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볼 때, 정치인들이란 데마고그들이고 군인들이란 무능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며, 민중들이란 페론리즘에 영원히 오염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공짜만을 좋아한다. 이에 반해 민중들은 자유주의적 경제계획가들이 희생과 생산성 증대를 요청할 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두세력들은 이익을 쟁길 따름이지 결코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는 끊임없는 교착상태이다. 민중들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고 과두세력은 부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없다. 어떠한 정권이 권력을 잡든간에 국가는 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국가는 위협하고 처벌까지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왜냐하면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고 경제현실은 조만간 정부당국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명백한 돌파구라도 모두 순간적임이 드러났고 교착상태가 다시 돌아왔다.¹⁸⁾

페론시대가 제시했던 화해의 국가, 조직화된 공동체, 정치적·경제적 자주독립의 위대한 이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17) Paul Lewis, *The Crisis of Argentine Capitalism* p. 498.

18) Paul Lewis, *The Crisis of Argentine Capitalism*, p. 502.

히 강력하고 상이한 집단들은 민족적 이념으로 몽치기보다는 배타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극도의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수입대체산업화는 경제적 예측과 “발전의 역전”을 결과했다. 페론주의의 호소가 가져왔던 감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자리에 식민지 시대 이래로 아르헨티나가 직면했던 대내외적 현실이 냉엄하게 다시 찾아왔다. 세계 일류국가의 이상은 깨지고 제3세계 발전의 가장 나쁜 선례중의 하나로 아르헨티나는 전락했다.¹⁹⁾

VI. 결론

주지하다시피, 아르헨티나는 1955년 쿠데타로 페론이 몰려난 이후 극도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겪어왔다. 1955년부터 1983년 민주화 시기까지의 28년 동안 두 번의 군사개입과 이에 따른 15년여의 군사통치가 있었고 1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됐다 (표1 참조). 경제적으로도 침체와 성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장은 없었고 계속되는 고율의 인플레이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어디로 갈 것인가?

1983년의 민주화 이후 아르헨티나는 라디칼당과 페론당이 선거에서의 승패를 통해 정권을 교체해 나가는 경험을 하였다. 라디칼당이 페론당이 참여하는 자유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전후 처음으로 1989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악순환이 단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아 두 당은 각자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알폰신과 메넬은 라디칼당과 페론당의 전통을 떠나 경제위기의 현실을 직시했다. 이 또한 지난 40여년간 아르헨

19) 이러한 현실을 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포획된 전환(arrested transition)의 사례를 대변한다. 1940년대의 유산은 새로 이주한 도시민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노동운동, 그리고 페론주의적 민주주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여전히 농지를 지배하고 있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 군부와 같은 권력집단들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상업과 금융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행사했던 역할들 중 많은 것들을 역시 회복했다. 엘리트들이 이제 산업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가로서 보다 다국적기업들을 위한 중개인이나 대리인으로서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협력자나 대리인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떠맡고 있는 것이다.” D. Rock, *Argentina 1516-1987*, p. 332.

티나를 괴롭힌 경제적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알폰신의 라디칼당은 위기해결에 실패함으로써 스스로 5개월의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났다. 한편 메넴은 페론주의의 경제정책을 거의 완전히 버리고 군사정부나 라디칼당도 감히 선택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통적 자유주의 경제처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메넴은 과연 아르헨티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메넴의 아르헨티나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와 페론당은 과연 지금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개혁을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르헨티나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페론시대의 유산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르헨티나 현상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아르헨티나인들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표1. 1955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승계 연표

1955.9	- 1955.11	Eduardo Lonardi 장군
1955.11	- 1958.5	Pedro Aramburu 장군
1958.5	- 1962.3	Arturo Frondizi
1962.3	- 1963.7	Jose Maria Guido
1963.7	- 1966.6	Arturo Illia
1966.6	- 1970.6	Juan Carlos Ongania 장군
1970.6	- 1971.2	Roberto Levingston 장군
1971.2	- 1973.5	Alejandro Lanusse 장군
1973.5	- 1973.7	Hector Campora
1973.7	- 1973.11	Raul Lastiri
1973.11	- 1974.7	Juan Peron
1974.7	- 1976.3	Maria Estela Martinez de Peron
1976.3	- 1981.3	Jorge Videla 장군
1981.3	- 1981.12	Roberto Viola 장군
1981.12	- 1982.6	Leopoldo Galtieri 장군
1982.6	- 1983.12	Reynaldo Bignone 장군
1983.12	- 1989.7	Raul Alfonsin
1989.7	-	Carlos Saul Menem

The Cultural Origin of the Argentine Phenomenon : Peronism and Its Cultural Legacy

Jin-Young, Chung

Postwar Argentina has characteristically shown chronic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and the reversal of development. This path of national development is extremely contrasting with that of prewar Argentina when the country was one of the most promising ones in the world. How and why has this dramatic reversal of development occurre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ttempts to explain this phenomenon, mainly in terms of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tries to complement existing academic endeavours by adopting a cultural perspective, that is, focusing on cultural variables on economic performance. The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it is the cultural legacy of Peronism which is accountable for the Argentine riddle. This argument is composed of five interrelated propositions about the role and consequences of Peronism. First, Peronism was a peculiar,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populism, nationalism, and corporatism in the history of Argentina. It was through the Peronist era that the prevailing ideology in Argentina was transformed from liberal internationalism to national protectionism. Second, the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s transformed Argentineans attitude towards the other segments of the population and the state in such a way that the division between "we" and "they" has become conspicuous and the nation-state itself came to be perceived as the instrument of partisan interests. Third, nationalism lost its persuasive power to call for national common sense and purpose as it had become the ideological tool of populism. Fourth, corporatism and populism turned out to b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as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nagement as corporatism could not effectively work in a highly mobilized society under populism. Fifth, Peronism could not survive Peron in that his charismatic leadership was indispensable for the maintenance of minimum social and political order in face of extremely particularistic individuals and corporates, competing and struggling for their own self-interests.